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호 [루게 제23328호] 주제100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지난해 12월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단천마그네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서 현대적인 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나라의 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단천광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것은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리는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단천항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우고있는 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하시었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단천마그네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기 자헌,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경제를 건설하고 그것을 도약대로 삼을 때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단천광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동계급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와 힘을 합쳐 짧은 시간에 제품정밀도를 종전 대비 10배로 높인것은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발리프》는 여러 나라에 대해 2011년을 맞는 조선인민을 축하한다고 지적하고 공당사실의 전문을 실었다. 라오스통신과 신문 《비엔티안타임스》, 《바레타오》, 《공파빠싸손라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와 《알 샤키르》,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안 오브저버》, 기네 국대방송,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캄보자의 에프엠90.5 방송도 공당사실의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에 즈음하여 《올해에 다시한번 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일으키자》를 발간하여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더욱 위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믿음의 신념을 넘쳐있다고 하면서 공당사실의 상세한 내용을 편집하였다. 방글라데시-조선친선 및 현대성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단천항의 공업사실을 창조하여온 조선의 근대화와 인민의 더욱 위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믿음의 신념이 넘쳐있다고, 조선의 새해공당사실을 열렬히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블레진으로 발행

강조하고 사실의 전문을 실었다. 브라질 조선친선협회 블레진은 《조선의 공당사실 올해의 투쟁과 업과 방도 제시》라는 제목을 달고 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였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1일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레진에 게재하였다. 브라질공산당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에 즈음하여 《올해에 다시한번 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일으키자》를 발간하여 조선의 근대화와 인민의 더욱 위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믿음의 신념이 넘쳐있다고 하면서 공당사실의 상세한 내용을 편집하였다. 블레진에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하에 단천항의 공업사실을 창조하여온 조선의 근대화와 인민의 더욱 위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믿음의 신념이 넘쳐있다고, 조선의 새해공당사실을 열렬히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공공사설을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나오신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당사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열어주시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공업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인 김정일동지의 유언이며 그이의 이송고한 뜻은 김정일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보인다. 지난해 미국과 리명박 《정권》은 무모한 군사적도발들을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을 극도로 위협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이며 화적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특독히 보여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제국주의

자들의 모든 군사적도발을 단호히 거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전심으로 바란다. 스페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새해공당사설에서 다시한번 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관한 일을 일케데 대하여 호소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10년간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과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이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대고조의 앞장에 서시어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빛나는 결실이다. 공당사설은 올해에 조선의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위해 위해 남조선당국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명박의 길로 나옴으로써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스페리에조선친선협회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봉을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지난해 12월 21일 로씨야 하바롭스카야 크라

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름블레이다》를 베를린조선신문화학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름블레이다》를 베를린조선신문화학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

김철의 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을 힘있게 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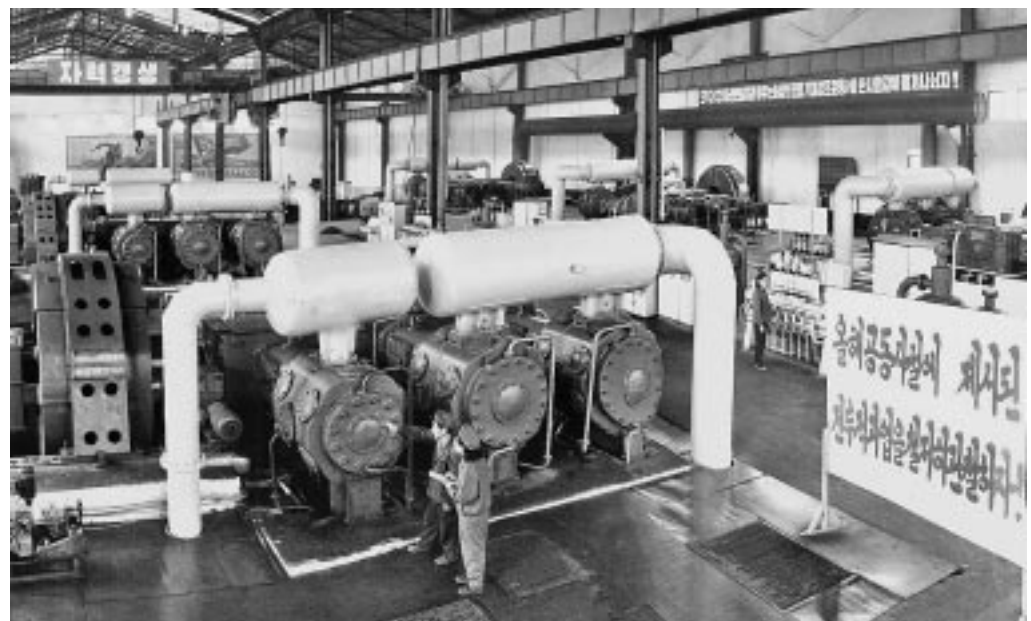
대고조를 추동하는 밑불이 되도록

올해공당사실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전력생산자들이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서서 달려나가기로 확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이 발동되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양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전력증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전력생산자들의 정신력을 총괄발시키는 사상교양사업에서 찾고 전력증산을 위한 총공격전으로 불붙이기는 정치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활발히 벌리고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는 공당사실과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 전력생산자들을 불붙이키는 구호들과 표어들을 전투장마다에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전투속도를 비롯한 직관적진물들을 눈이 번쩍 뜨이게 제시하고있다. 이런 직관적전, 직관적동은 출근길에 나선 기업소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현명하게 일러를 들먹하게 하는 화신식선봉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자들이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로 심장을 펌펌 끓이며 전력증산을 힘있게 펼쳐나오도록 하고있다. 수풍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서두수발전소의 당조직들에서는 로력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 공당사실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그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전력생산

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태천발전소 당조직들은 전력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당사실의 내용을 깊이 해설 해주어 그들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발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일들과 합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전력증산의 예비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찾고 기술혁신운동은 대조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의 당조직에서는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설비보수전투를 당, 행정일들이 한고리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예비부품들을 마련해두고 전력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장

여 지난해에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4호발전소의 발전설비운영의 CNC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하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기술혁신에 참가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면서 그들이 정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잘 때릴어주고있다.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각기 발전소의 당조직들에서는 발전설비들의 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자력생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정진적인 정치사업에 의하여 전력생산자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인민생활대고조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선군전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전력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공당사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홍남비로련합기업소에서— 김진명 찍음

평양시에서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해공당사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철증산에 떨쳐나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과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강한 국가적대책을 세우며 이 부분을 당적으로 힘있게 벌여주어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지도부에서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군들은 구역, 군들과 동, 인민반들에 내려가 강선의 로동

계급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 주면서 파철수집사업에 한사 팔같이 떨쳐나오도록 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첫 파철수집 사업에서는 서성구역, 신교구역, 중구역, 모란봉구역에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모범을 보였었다. 북룡구역 세기리동의 인민반원들은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두가 떨쳐나 모이들인 파철을 싣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로 달려가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중앙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명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는 이야기를 감명깊이 들려 주면서 넓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펴기하고 예비를 적극 탐구하면서 많은 파철을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대학들의 교직원, 학생들과 락양구역 금대협동농장의 농장원들도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밑에 많은 파철을 실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강철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최재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황해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한편 책임일군들이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그곳 일군들이 오래된 설비들을 대담하게 펴기하며 파철수집사업을 군중적으로 펴며 벌려나가기로 적극 도와주었다. 송림시와 은파군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앞장서서 파철수집사업에 톱이 크게 벌렸다. 그들은 대중의 자각적인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철수집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 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수십 t의 파철을 수집할수 있게 하였다. 사리원시와 중화군, 강남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나라의 강철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수집사업에 떨쳐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황해의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말 사인 특파기자 김천일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평양양말공장 매일계획 넘쳐 수행

평양양말공장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있다. 올해공당사실을 받들고 신심드높이 인민생활향상대고조전투를 벌려나가는 이들은 첫 전투에서부터 기세를 올려 높이 세운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은성속에 주체적CNC화에 기초하여 꾸려진 설비들의 가동률

이 높아져 지난해 같은 때보다 생산이 훨씬 증가하였다. 일군들은 새해첫투부터 전투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벌리면 서 로동자들이 김철의 너성훈을 량 대고조의 전열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불려일으키고있다. 로동자들은 첫 날실적을 150%, 160%로 끌어올린 기세를 늦추지 없이 련일 혁신성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선행공정에서 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양말짜기회도 날마다 초과완수되고있다. 녀자양말직장 로동자들이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하고있다. 우리 당의 리상을 현실로 쫓아 피워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려는 열의를 안은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에 의해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새해농사차비에서 혁신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새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1월 10일현재 동농총련리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때보다 거름생산은 162%, 거름실어내기는 110%, 중농수준은, 영농자재준비는 125%, 생물활성퇴비생산은 131%로서 농사차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사차비를 매년에 없이 앞당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군들이 시, 군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어 농업근로자들에게서 공당사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농사차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특히 농사차비에서 기본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두고 여가 모든 역량과 수단들을 집어 모든 역량과 수단들을 집어 중시해 매일 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거름생산에서는 신의주시, 영농자재준비는 125%, 생물활성퇴비생산은 131%로서 농사차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사차비를 매년에 없이 앞당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군들이 시, 군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어 농업근로자들에게서 공당사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농사차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특히 농사차비에서 기본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두고 여가 모든 역량과 수단들을 집어 모든 역량과 수단들을 집어 중시해 매일 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거름생산에서는 신의주시, 영농자재준비는 125%, 생물활성퇴비생산은 131%로서 농사차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농사차비를 매년에 없이 앞당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군들이 시, 군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어 농업근로자들에게서 공당사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파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달린다.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날 새해 2011년에 즈음하여 메히꼬로
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리는 커
다란 영광을 가집니다.

2010년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당신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대정치축전으로 경축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
에 과시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당신의 선군혁명명도밑에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이 이룩한 커다란 승리와 성과들은 사회주의
를 지향하여 싸우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심과 희망의 해인 새해 2011년에도 당신의 로수하고 세련된 명도밑에 조선로동당
과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
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는바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는 이 기회에 당신께 전경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명도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양의 경의를 표합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직위원회 조정자
알베르도 아나야 구뮈에레스
2010년 12월 20일

평양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
김정일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새해 2011년에 즈음하여 각하게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와 훌륭한 친선의 정을 나누면서 새해가 전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전, 부리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행복의 해로 되기를 념원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게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쿠웨이트 국가 추장
셰이크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2010년 12월 21일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각하

나는 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각하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
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에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2010년 12월 30일

우리 총련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굳센 결의와 영도의
출발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
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
고 사랑합니다.》

주제 56 (1967)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다가 초소를
지켜가고있는 인민군대의 한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였을 때
였다.

홀홀히 꾸러진 병실과 번
뜻하게 닭아는 초소길, 그
광염에 즐지어 심어놓은 백
양나무들, 갈매기떼날아에는
무연한 바다...

한동안 그 모든것을 정정
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증대위치가

이주 좋다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요는 바다기슭에
있는 쪽에 오르시어 멀리
까지 항행하시면서 해안포
병들의 가슴속에 달고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함께 조국

고 말씀들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전사
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
자고 하시며 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일군을 만류하시
였다.

이윽고 식당으로 향하신
그사이에 식탁에는 소박한
점심식사가 차려졌다.
그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중
대장의 팔을 단정히 잡아 식
탁으로 이끄시였다.

그러신 다음 국을 들여오
라고 말씀하시였다.

수행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망설이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신을 돌려 증대장에게
어서 전사들을 돌려오라고 거듭 이르시
였다.

중대장이 격동된 마음을
안고 그이께 국을 가져다
드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국
맛을 보시더니 구수하고,
국맛이 참 괜찮다고 하시며
높이 치하하시였다.

순간 모두의 가슴은 솟구
치는 격정으로 새겨 설레
였다.

전사들에 대한 사랑이 얼
마나 뜨겁고 열렬하였으면
같이 보양제 시린 위사장에
들어가시어 가마부평도 얼어
보시고 전사들이 일상에서 허물
없이 리용하는 식탁의자에 허물
없이 앉으시어 그들이 끓인 국
맛까지 보아주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였던가.

시간이 흐를수록 식당안
은 단란한 분위기로 휩싸
였다.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선군명령의 천어비어사장이
넘쳐흐르는 참으로 뜻깊은
점심식사였다.

본사기자 리성국

사랑찬 현실을 안아오는 사랑의 장정

올해공동사업에는 새해 주제 100
(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
꽃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고 밝혀져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민생활향
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야 한다는
공동사업의 구질구질을 심장마다에 뜨
겁게 새겨보는 이 나라 천만민은 강
성대국승리의 날이 바로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전진이 힘차
게 벌어진 지난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사면들이 다계단으로 렬
쳐졌던가.

어머수령님의 리상 실현의 불바람
이 활활 타번지는 속에 온 나라에 대
경사를 안아온 주체비남론, 주체비로,
주체결의 위대한 승리, 조선은 결심하
면 한다는 불굴의 기상을 다시금 세계
에 과시한 대계도의 기적...

남들같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이 땅
의 눈부신 기적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리도 승리를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변불후의 정력적인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
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
습니다.》

세상이 사랑이란 말이 생겨나 얼마
나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왔던가.
그러나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하
늘처럼 믿고 사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장정을 광활롭게 수놓아가시
는 위대한 어버이의 역사를 세계는
알지 못한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수행
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물지 않는 정치리념은 명
실공히 인민을 위한 사랑이다.

혁명은 목적이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요.

나는 인민의 한사람이며 일생을
인민의 심부름꾼으로 살것을 결심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고 혁
명의 최고목적이기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각도 인민을 위한 강행군의
신들레를 풀지 못하고 사랑의 천만리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것이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
에서 결정적전환을!

이 위대한 사랑의 호소로 천만군민
의 심장에 불을 지퍼주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열풍이
거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어머수령님께서 말기초가신 우리
인민을 세상이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인민생활향상대
전군의 진두에 서시어 강성대국승리의
한길로 우리 조국을 힘차게 이끌어가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무슨
말로 해야될수 있랴.

부디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였으면
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
는 명절날마저도 인민의 행복을 뜻하
우는 사랑의 길에 계시고 그 길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행군속도를 제
촉하시라는 어머수령님의 교훈이다.

지금도 지난해 1월 홀홀히 꾸러진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어 그처럼 구름에
넘쳐서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숨쉬어 안겨온다.

있지 못할 그날 이따양도 정결한 문
화혁명시절들이 그흔히 갖추어지고 각
종 과업나들이 숲을 이룬 이 공장은
마치 유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던
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공장일군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한대적으로 꾸러진 2.8비남론련
합기업소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복도처럼 쏟아지는 비남론을 보시며
도 열어나나 만족해하시였던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제
어머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인민에게 질 좋은 비남론을 더 많이
이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
하시던지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 비남론을 보시오. 이것
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
하시던 주체의 비남론입니다. 금수산
기념공원에 계시는 어머수령님께서
이 비남론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
시겠습니까.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
낸 새 비남론을 수령님께 어서 가지
고갑시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위대한 심장을
불태우신 어머수령님의 념원을 또
한가지 실현한것이 너무나 기쁘시어,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
의 선물도 마련된것이 그러한 기쁘시
어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하란 미소로
지으신 우리 장군님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생의 전부로 알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어머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는 성스
러운 길에서 남들은 생각조차 할수 없
는 기적에 기적만을 창조하고있는것
이리라.

보라.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세상을 들었다놓는 최첨단과학품,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장들, 갖가지
경공업제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경공업
생산기지들...

대동강기슭에 번듯하게 건설된 료리
전문식당에 가보아도, 현대적설비로
장비된 양말공장이며 과학의 전당들에
마련된 전자도서관에 가보아도 행복의
웃음소리와 함께 더 높이 울려 퍼지는
신민의 명성이 있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
없는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이것이 지나가나 인민을 위하여는
어머수령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
하기 위한 인민생활향상대전에서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 오늘 우리 군대와 인
민이 리치는 신민의 목소리이다.

격동적인 사면들로 지난해를 빛나게
장성시키고 올해를 보다 큰 승리와 영
광의 해로 수놓으시기 위해 사랑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
는 장군님!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주의 길에서
사랑의 최고정지를 개척하시오 천만의
대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불려일
터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선군혁명의 대지는 사랑의 화
염으로 번말할것이며 선군조선은
인민의 탁월한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정 수 학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
여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
의 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에 더 높은 과업수행으로 새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을 같은 열의로 애국의 구슬땀
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동동원원 조 상 구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정 수 학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은 경제전선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릴것을 요구한다.

(공동사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힘차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굴지의 생산생산자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힘을 띤 철산봉에서는 대형굴착기들이 깎을 연방 회회로 일지러를 뚫고 나고 있다. 대형굴착기들이 보인 눈자루를 날리며 선행공정의 돌과구를 열어나간다. 그런가하면 눈부러이득히 펼쳐진 제철제강을 따라 철광석과 바트를 무드기 실은 대형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대형과제장과 선광장에서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린다.

— 15만산대발파의 포성으로 첫 전투에 진입한 광부들

방송선전차에서는 호뜻한 첫 전투수석이 려이 전해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에 부르는 격조적인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올해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디에는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있다.

《우리는 금속공업의 생명성을 지켜 총공격전의 해인 올해에 보다 큰 생산성과를 안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총진군의 발구름소리 높이 이르는 총진군이다. 이곳 로동계급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그

불같은 결의는 실천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첫 전투준비를 민들없이 갖추었다.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한마음으로 대고조전진속도를 높이고있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채광, 운광, 선광부문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첫 전투를 위한 뚜렷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기동적인 생산조직으로 대형원추형과제기기를 내게 하는 문제, 제철굴착기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문제, 선광장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문제 등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실적을 올리기에 위한 면밀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중요생산현장들을 타고다녔다. 그들은 생산선진자들에 들어가 화신조직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1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로동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대형굴착기와 회전식착각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대형굴착기운전공들과 회전식착각기운전공들이 서있다. 그들은 자기 과제가 끝났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고 다음과제를 도와주며 집단적열의를 불길게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운광부문의 일군들은 대형굴착기들의 실패를 최대한 높이는 원칙에서 생산조직을 짜고두고있으며 운전사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여 철광석과 바트 운송실패를 높이고있다.

선광부문의 로동계급은 중요생산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를 더욱 짜고두고있으며 표준작업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세차게 들어와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였다.

광부분광의 일군들과 로동

자들은 현행생산에 관한 부족점과 청년층을 위한 대고조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서 두루, 세뿔의 일감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었다. 이 과정에 많은 부족점을 가감하여 중요생산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전투에 펼쳐나선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정에 의하여 선광장과 잇닿은 제철공장에는 지금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들에 보내줄 철광의 로동계급이 시공간이 다르게 높이높이 쌓이고 있다. 질 좋은 철광광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하나의 열혈처럼 연결된 대형장기제철광송수관을 따라 힘있게 흐르고있다.

그 거창한 흐름은 쇄골폭포로 이어지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용양대천신 각지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성삼

총공격전의 기상 나래치는 동력기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부대입니다.》

창조와 비약으로 들끓는 우리 조국의 벅찬 승업인양 굴지의 동력기지를 부강화해발전 연합기업소의 전투장마디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 있다.

다시한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불도가나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이러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정신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로동계급은 올해전투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칠 맹세를 다지고 생산전투에 전진하였다.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새해의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백철봉의 투쟁정신과 철공의 락관이 차넘치는 노래 《승리의 길》을 높이 부르며 부딪치는 예로

와 난관을 파견하듯수준을 기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소책임일군의 심정만이 아니다. 나이지속한 조작공으로부터 예뻐운 운전공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런 불타는 열의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새해전투의 순간순간을 자랑스런 위훈과 혁신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청년전진과 2직장의 전투원들, 정초부터 수백만kWh의 전력을 생산!

—보수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 발전설비의 정비보수에서 새로운 혁신!

전투장마디에 창조와 비약의 기상, 결사관철의 정신이 나래친다.

일마침 청년전진에서 운영중에 있던 보일러에 이상이 생겼을 때였다. 전초부터 보일러를 세우지 않고서는 보수작업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곳 로동계급의 뜨거운 열의와 양보이라는 순간도 가감을 멈추지 않았으며 중산의 동음은 더욱 높아만 갔다. 보수부문의 청년전진과 2직장의 기술자, 기술자들이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끝내 보일러를 보수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런 투쟁기풍과 일선로동자들의 전력생산자들은 정초부터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어느 직장,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좋다.

2직장의 로동자들은 가동중에 있는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관리운영을 표준작업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데 신중주의를 기울이고있다.

4직장과 3직장의 로동자들은 기술자와 철공의 락관이 차넘치는 노래 《승리의 길》을 높이 부르며 부딪치는 예로

평천역 석탄집수송전투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 주어야 합니다.》

철도들이 수시로 엮갈리는 여기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가까이 한 평천역 석탄집수송전투장이다.

이른아침부터 넓은 역구내가 활력수송전투로 들끓는다. 석탄을 무드기 실은 화차들을 끌고 기차차고 구내선에 들어서는 《붉은기》 6035호전기기관차, 차차이로 바베 움직이는 운전지휘원과 조차원, 권원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전투장을 둘러보는 우리에게 세정양기관차대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장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각각한 우리 수송전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모두가 노래 《승리의 길》을 높이 부르며 올해의 전진길을 다그쳐 갈고리에 붙여넣습니다.》

백두의 붉은기름을 높이 들고 수령님을 따라서 시작한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변함없이 걸으며 기어이 승리를 떨칠 이곳 수송전사들의 든든한 배경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말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집차원들이 방금 들어온 화

차들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뒤따라 조차원들이 여러가지 신호를 하면서 차갈이를 진행한다. 얼마후 《붉은기》 6035호 전기기관차의 정비선으로, 석탄을 실은 열차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용선으로 들어간다.

시계를 들여다보면 열차검사중대 대장장수는 20분이나 시간을 앞당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한다.

전투는 계속된다.

집수송 열차를 다시 편성하여 탄광으로 떠나보내게 된다.

기관차정비장에서도 열차검사중대에서도 또다시 열차의 출발준비로 분된다.

과제를 마친 승무원들과 가족들까지도 펼쳐나 전투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얼마후 정비시간을 단축했다는 격조적인 소식들이 전해진다.

새해의 전진길에 위훈의 자욱을 새기며 가슴번쩍 운행길을 달려온 기관차 앞 명공동무가 화차 두랑을 더 달렸다고 결의해나신다.

봄—

출발을 알리는 중중의 기적소리가 길게 울린다. 동력기지에서 울리는 전력중산의 벅찬 동음과 어울려 새해의 첫 수송성과를 알리는 이 위훈의 기적소리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이 되어 조국의 푸른 하늘까지 울려 퍼져나간다.

본사기자 강병일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천대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올해공동사설과 김책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천대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새해 첫 전투부터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연합기업소에서는 여러 개소에 예비제탄장을 새로 마련하여 지난해와 같은 때보다 석탄생산량을 1.4배나 끌어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이 거둔 성과는 어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키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의 불타는 충성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석탄과 철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물결기를 열어 나가도록 하라 합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새해부터부터 석탄중산투쟁을 결심하고 있는 광부들속에 들어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조직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기업소참모부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민들없이 짜고들도록 하

힘있게 벌여주는 속에 전장경과 청년층을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것들에서 매일 멀거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천대탄광에서는 제탄장관리를 하고있는 청년제탄장대사에게 더 많은 제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제탄장관리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탄광의 광장마다에서 탄부들은 자기가 맡은 생산과제를 추호도 어길수 없는 전투정신으로 여기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그에 맞게 일군들은 일출산 및 재정총화를 정확히 진행하면서 탄부들을 중산돌격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삼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주고 필요한 설비부속품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생산을 다지고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동발드러기와 앞선 발광방법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연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첫 전투에서 거둔 성과에 자만없이 높은 목표를 내걸고 대고조 들끓는 전투장마디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선군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자

체육인들의 열기모임 진행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체육인들의 열기모임이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강승수대장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모인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방명첩체류상이 보고를 하였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낭독된 다음 결의토론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

라인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국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며 대한 공동사설과 김책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는 체육인들의 열기모임이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체육인들이 총공격전의 해인 올해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리의 체육기치를 높여주며,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추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체육기술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체육과학연구소를 심화시키고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양시켜

기포부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일련한 놀고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공장앞에 나선 전투원들은 참으로 바쁘다. 평양시 10만대에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기포부재생산설비를 기한전에 끝내는것과 함께 기포부재혼합장건설, 성형장건설, 출하장건설, 콘크리트 치기공사 등 공정의 변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실로 아픈한 과업이었다. 조건에 비해 전투목표는 너무도 높았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제대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짙게 들어차 있었다.

순간순간을 값있는 위훈으로 빛내려는 이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비서 리병동무는 지난 시기의 좋은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좋은 열의와 피뎠을 제대군인들에게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초급당조직의 지도 밑에 제대군인들을 기본으로 돌격과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승리의 돌과구를 얻어제끼기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설계되었다.

당조직의 민음속에 돌격대원들은 전투 첫날부터 맑은 파업을 붙이 번쩍 나게 해제했다.

출하장바닥콘크리트 치기공사에 돌격대원들이 리병동무는 이들을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지난 한해동안 이들이 해

당의 경공업혁명방식을 높이 받들고 편지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선교편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공사에 필요한 기와를 자체로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고산파수정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구조를 높이 들고 살림집과 생산건설에 필요한 기와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와공장을 건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이 파수업발전에서 고산파수정사업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함이다.》

2년전 6월 한 장군님께서는 파수발전리로부터 파업공배치는 물론 살림집과 생산건설

현대화공사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은 여러가지 기와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대담하게 일관을 벌리였다.

현대화공사에서 기와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돌격대원들은 기와공장을 훌륭히 임태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이 돌격대자체의 기술력향상을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제기하고 시형생산

평양의 기포부재공장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일터. 이것은 새해공동사설과 편지에 펼쳐나선 평양기포부재공장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감탄하며 느끼는 한결같은 심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의 길에 달려나가기 위한 사상적신력입니다.》

새해전투 첫시작부터 기포적장과 원로직장을 비롯한 공장

정신력을 적극 발양시켜

기포부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일련한 놀고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공장앞에 나선 전투원들은 참으로 바쁘다. 평양시 10만대에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기포부재생산설비를 기한전에 끝내는것과 함께 기포부재혼합장건설, 성형장건설, 출하장건설, 콘크리트 치기공사 등 공정의 변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실로 아픈한 과업이었다. 조건에 비해 전투목표는 너무도 높았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제대군인들의 심장마다에 짙게 들어차 있었다.

순간순간을 값있는 위훈으로 빛내려는 이들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비서 리병동무는 지난 시기의 좋은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좋은 열의와 피뎠을 제대군인들에게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초급당조직의 지도 밑에 제대군인들을 기본으로 돌격과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승리의 돌과구를 얻어제끼기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설계되었다.

당조직의 민음속에 돌격대원들은 전투 첫날부터 맑은 파업을 붙이 번쩍 나게 해제했다.

출하장바닥콘크리트 치기공사에 돌격대원들이 리병동무는 이들을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지난 한해동안 이들이 해



당의 경공업혁명방식을 높이 받들고 편지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선교편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공동사설에서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고 의학 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야 한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보건부문 일군들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결정적전환의 해에 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고 의학 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아가 할 무렵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시되어있는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은 성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성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과업 완성을 위한 협의와 모임을 열고 새해에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갈 중심과업과 방도들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책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의사, 간호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들을 수령님의 의료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옮겨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새해 첫 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면방도를 두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성의 책임일군들이 내린 결심은 명백하였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수령사용위신은 근면책으로 하는 혁명적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속있는 조직지도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성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인민군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는 혁명적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지난 시기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발달된 아름다운 소행자료를 해설담화자료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민간의 준비를 갖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첫 전투에 떨쳐나선 보건부문의 령도적담당자들에게 내려갔다.

전반적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해액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평양산원에서는 성의 책임일군은 새해 첫날부터 건강

한 소생전투를 벌이고있는 의사, 간호원들속에 들어가 이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해주고 공동사설에 반영된 당의 의도도 해설해주시며 의료일군들의 심장속에 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보건의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평양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 내려간 성의 일군들도 현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마대에 불을 다는 화신식직업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올해의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성일군들의 적극적인 고무추동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고있다.

성에서는 공동사설의 정신에 맞게 올해의 인민보건사업을 개선하는데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도 적극 짜고들고있다.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보건사업전반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들이 탐구되고있다. 지난해 말에 열었던 성적인 사업성과 전시회는 올해전투를 작전하는

증산군 사천리인민병원을 찾아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증산군 사천리의 세 거리가까이에는 아담한 문화주택의 건물들이 있다. 그곳이 바로 한중과 적의선 등 인공물리 치료수단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널리 소문난 사천리인민병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리치료는 좋은 치료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며칠 전이었다. 1월의 날씨는 맑았지만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기다림에서는 방금 한 중환자를 리용하고 나온 주민들이 리용치료를 기다리며 기본종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촌들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곁에 두고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치료를 받고있으니 세월은 정말 좋은 세월이네요.》

한중치료를 배워야 산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말이였다.

우리는 원장 한광성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한중치료를 배워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 여러 치료실들을 돌아보았다. 추운 바깥날씨와는 관계없이 따뜻한 온도가 보장되는 고리약과 내과, 산과 등의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이 모두 훌륭하게 꾸려져있었다.

따뜻한 병원의 매 치료실마다에서 정초부터 건강검진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운 혜택을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뜨겁게 미치고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다. 생취위오르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소문난 한중치료를 향하였다.

기다림과 안정감, 목욕시설 등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진 한중치료실에서는 참속과 같은 약초의 향기가 짙게 풍기였다. 민중의선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게 꾸려진 한중치료실은 바다도 온습식으로 되어있어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좋았다.

《약물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안 어버이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지난 10년간 한중과 적의선 등 인공물리치료수단들을 리용하여 신경계통을 비롯한 여러 질병치료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니다.》

이렇게 말하며 리용치료를 리용해, 오문실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한중치료를 배워야 주민들의 건강을 회복시켰다고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겨져있는 기록장을 우리에게 펼쳐보이는데였다.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사업에 의하여 병원이 훌륭하게 실현된 평범한 농촌리인민병원에서 인공물리치료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통해 주민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깊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처럼 어린이와 장애인으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든 인민들의 건강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며 병이 나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평양산원에 세워 지내달에 내세 생생동이 출생한데 이어 새해 첫날에 또다 시 생생동이 태어났다. 1월 1일 0시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지고있다.

세쌍둥이를 낳은 한명화녀성은 임신유지를 위해 70여일간을 평양산원에 입원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그는 특별대우속에 임신유지를 위한 극한의 의료봉사를 받은 결과 순조롭게 몸을 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찍이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면서 생생동이 출생한데 이어 새해 첫날에 또다 시 생생동이 태어났다. 1월 1일 0시에

첫 지원자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일을 더 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계속 빛내여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부터 흥남가스화대상공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위생가방을 맨 의료일군들도 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치료에방사업을 벌려나가고있는 흥남비료공장병원의 의료일군들이다.

피로가 실려 총력된 눈, 부른 입술, 엄중한 겨울바람에 거칠어진 손들은 돌격대원들을 위해 바쳐지는 이들의 헌신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원장 리영애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새해 첫날부터 돌격대원들을 위한 헌정의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때없이 제기되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밤에도 수술대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외과과장 한희철동무, 투박의 환자들의

증산군 사천리인민병원을 찾아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증산군 사천리의 세 거리가까이에는 아담한 문화주택의 건물들이 있다. 그곳이 바로 한중과 적의선 등 인공물리 치료수단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널리 소문난 사천리인민병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리치료는 좋은 치료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것은 며칠 전이었다. 1월의 날씨는 맑았지만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기다림에서는 방금 한 중환자를 리용하고 나온 주민들이 리용치료를 기다리며 기본종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촌들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곁에 두고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치료를 받고있으니 세월은 정말 좋은 세월이네요.》

한중치료를 배워야 산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말이였다.

우리는 원장 한광성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한중치료를 배워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 여러 치료실들을 돌아보았다. 추운 바깥날씨와는 관계없이 따뜻한 온도가 보장되는 고리약과 내과, 산과 등의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이 모두 훌륭하게 꾸려져있었다.

따뜻한 병원의 매 치료실마다에서 정초부터 건강검진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운 혜택을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뜨겁게 미치고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다. 생취위오르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소문난 한중치료를 향하였다.

기다림과 안정감, 목욕시설 등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진 한중치료실에서는 참속과 같은 약초의 향기가 짙게 풍기였다. 민중의선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게 꾸려진 한중치료실은 바다도 온습식으로 되어있어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좋았다.

《약물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안 어버이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지난 10년간 한중과 적의선 등 인공물리치료수단들을 리용하여 신경계통을 비롯한 여러 질병치료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니다.》

이렇게 말하며 리용치료를 리용해, 오문실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한중치료를 배워야 주민들의 건강을 회복시켰다고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겨져있는 기록장을 우리에게 펼쳐보이는데였다.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사업에 의하여 병원이 훌륭하게 실현된 평범한 농촌리인민병원에서 인공물리치료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통해 주민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깊이

온 나라에 기쁨을 주는 힘찬 고교성

평양산원에서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어머니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나라가 세쌍둥이, 네쌍둥이 부모가 되어주고 앞날까지 책임지며 자식을 낳은 평범한 녀성들에게 온 나라가 아낌없는 축복을 보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는 행복과 축복의 대명사로, 그 출생이 온 나라에 기쁨을 안겨주는 커다란 정사로 되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지고있다.

세쌍둥이를 낳은 한명화녀성은 임신유지를 위해 70여일간을 평양산원에 입원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그는 특별대우속에 임신유지를 위한 극한의 의료봉사를 받은 결과 순조롭게 몸을 풀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찍이 세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면서 생생동이 출생한데 이어 새해 첫날에 또다 시 생생동이 태어났다. 1월 1일 0시에

첫 지원자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일을 더 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계속 빛내여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부터 흥남가스화대상공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위생가방을 맨 의료일군들도 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치료에방사업을 벌려나가고있는 흥남비료공장병원의 의료일군들이다.

피로가 실려 총력된 눈, 부른 입술, 엄중한 겨울바람에 거칠어진 손들은 돌격대원들을 위해 바쳐지는 이들의 헌신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원장 리영애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새해 첫날부터 돌격대원들을 위한 헌정의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때없이 제기되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밤에도 수술대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외과과장 한희철동무, 투박의 환자들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효능높은 고리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 장수고리약공장에서 - 본사기자 장철민 찍음

우리측에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 밝힌데 따라 실천적조치들을 공식통고하는 통지문을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북남경제협력회의사무소 우리측 소장인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회의사무소 남측 소장장으로 각각 보내었다.

통지문들은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것을 제의하며 1월 12일부터 관문적십자면역통로를 다시 열고 북남경제협력회의사무소를 정상운영한다고 지적하였다.

첫 걸음부터 다르다

강원도정보통신국 3대혁명소조원들

한걸음은 목소리이다.

1월의 맹전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최첨단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가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가슴은 더욱 후더워만진다.

올해 그들의 투쟁목표는 간단치 않다.

통신국안의 동력설비들과 교원들을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새 기술혁신

첫 걸음부터 다르다

파괴를...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놀란다. 하지만 소조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지난기간의 실천속에서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구현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기때문이다.

지난 한해만 놓고보아도 그들은 전화지동고장점수체계와 컴퓨터를 결합한 통신체계의

하여 대담하고 완강하게 돌진해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피할수 없는 심장마대에 새겨안은 소조원들이 리방복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의 총공격전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며 최첨단과정에 용약 떨쳐나섰다.

3대혁명전위들이 내디딘 세계의 첫걸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김없이 열어제끼려는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비상한 창조 의열을 느끼게 된다.

채인철

통 암 땅의 실 농 군

개천시 룡암협동농장 작업반장 김순옥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발전 담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업반장과학기술 지식선전실에 들어서니 김순옥동무가 농장원들과 빙 둘러앉아있었다. 온갖 시름을 잊고 온애목화상을 한몸쯤 든채 비쳐 웃고있는 모습이 리인상적이었다.

우리의 눈길이 그의 손에서 멎었다. 바탕에 트고 해발에 타서 거칠어진 손, 처저시절에 는 품고 매근했었던것이고 자식들을 키울적엔 아이들의 불을 때없이 끌어주던 손이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분조장으로, 작업반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그 고운 손으로 콧은일, 마른 일을 가리지 않았으리라.

동행한 농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작업반은 농장적으로도 제일 앞선 단위로서 지난 10여년 간 압록강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어느 작물에 비해

생육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앞선 제배방법을 실정에 맞게 도입해보기도 하면서 밭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러하여 지난해 그의 작업반은 목화농사에서 도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었다.

녀성시기 전에, 가정주부이기 전에 한계 작업반을 책임진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촌을 다니다하지 않고서도 농촌을 찾은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 드릴 한행사로 가슴 불태운 김순옥동무.

그러나 어찌 그의 손이 거칠어지지 않을수 있랴. 그런 그의 손에 붙네, 여름때 땀을 흘려 가우어 마려한 하얗고 부드러운 목화솜이 들려있었다.

우리는 녀성작업반장의 손을 꼭 잡아보았다. 장암이 바쳐 꽃밭하였지만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이런 실농군들의 손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나가고있으며 조만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고도 생각하거 가슴이 열려야겠다.

오은별

애국의 고 임 들

해주시 양사동 83인민반 로광혁동무의 가정

지나 해 어느날 가정의 고 임 들의 가슴은 울려대었다. 그들은 제 집 살림살이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가 달리는 살수 없는 가정 어리나오.》

순간 그의 가슴은 달아올랐다. 가슴속에 이런 불덩이같은 마음은 간직한 안해였기에 배두산선군정년발전소건설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해주시 부유중학교에 다니는 일심사와 함께 애국선전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떠밀어주었던것이다.

얼굴에 흘러 내리는 땀을 닦을 새없이 불

실시감시체계 등 수많은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였다.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그들은 불타는 창조적 열정을 안고 두뇌진, 기술진을 맹렬하게 벌리는데 승리의 열의가 있다는것을 실지 체험하였던것이다.

바로 그 성과에 토대하여 더욱 높이 세운 올해투쟁목표이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며 강성대국을 향해 대담하고 완강하게 돌진해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피할수 없는 심장마대에 새겨안은 소조원들이 리방복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의 총공격전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며 최첨단과정에 용약 떨쳐나섰다.

3대혁명전위들이 내디딘 세계의 첫걸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김없이 열어제끼려는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비상한 창조 의열을 느끼게 된다.

채인철

케를수 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앉힌 그는 온 가족이 떨쳐나 인민군대원으로서의 용기를 크게 불러주고 하였다.

며칠밤을 새워가며 원호물자를 마련한 이들은 순일들이 일하는 건설장소를 찾아가 자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소품무대를 펼쳐보였다.

매 종무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드는 애국의 고임들이 되려는 불타는 마음이 담긴 이들의 특별한 공연은 군인들의 절찬을 받았다.

로광혁동무의 가정을 찾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그가 웃었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는 소개할만 한 일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참답게 받드는 애국의 고임들이 되고싶었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이 우리 집도 있고 이 좋은 제도도 있다고, 원군은 조국위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손영희



장군님앞에서

자주통일의 기치, 민족번영의 이정표

새해공동사업은 북남공동선언이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이정표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우심하고 통일운동앞에 엄중한 단판이 조성되고있는 오늘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사업이 제시한대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 한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이며 온 겨레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립장에서는 변화가 없을수 없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우리 겨레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언제나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내세우고 침략적인 의세를 배척하면서 민족주체의 힘으로 화합과 통일을 이룩해나아가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는 오늘 민족자주야말로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된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절대적 전제인 민족자주를 사상과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따를수 있는 참된 애국의 리념으로 내세우듯이 바로 북남선언들이다. 6. 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6. 15공동선언에 담겨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10. 4선언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대한 사상은 자주통일의 원리와 진수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전민족이 지지공감하는 자주통일의 리념으로, 기치로 되어 조국통일운동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해내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끼리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오는 과정에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나라의 통일을 열어나가야 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진도가 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온 겨레를 민족번영의 쾌일로 확신있게 인도하는 이정표이다. 북남선언들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협력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

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는 북과 남이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의 해결방도가 명시되어있다. 북남선언들은 리행할 때만이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북남선언들이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새 민족사를 열어나가기 하는 전민족적기치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으로요이다.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리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선언들을 경건히 옹호하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정신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정결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감없이 떨쳐나서야 한다. 정세가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온 겨레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리념에 충실하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기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곧 그것을 반대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이다.

현실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반대하면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리다. 북남선언들이 보여주고있다.

북남선언들에 대한 부정은 북남관계 발전에 대한 부정이고 통일에 대한 부정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통일의 현수들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힘찬 투쟁을 가로막지 못한다.

은 민족은 공동사업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새해의 통일대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답 화 발 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3일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하여 《올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소속을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가슴마다에는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열의와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하여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하여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하는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의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연설자와 발언자들은 지난해 분렬주의세력의 약탈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전진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미제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정전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반통일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그

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철폐하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그들은 재우즈베끼스만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추진시켜나갈때 대해 밝힌 새해공동사업을 지지한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